

# 중국어 형용사의 언어유형론적 특징

## — 한국어와 대비를 중심으로 —

곽 휘  
(서울대학교)

GUO, HUI. (2015). *The Characteristic of Adjective in Chinese Viewed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 Comparing with the Korean Language —*. *Language Research*, 51.3, 701-726.

This paper aims to search the characteristic of adjective in Chinese. In linguistics, an adjective is a describing word, the main syntactic role of which is to qualify a noun or noun phrase, giving more information about the object signified. Looking the characteristic of adjective in so many languages in the world, we can find in some languages, the characteristic of adjective is as the same as noun. For example, the Dutch and French. But in other languages, such as the Korean and Chinese, the characteristic of adjective is as the same as the verb. Even though the characteristic of adjective in Chinese and Korean are both as the same as verb, there are so many different features between them because Chinese and Korean belong to the different linguistic stocks. So this paper is to search the characteristic of adjective in Chinese through comparing with the characteristic of adjective in Korean.

**Keywords:** characteristic, adjective, verb, Chinese, Korean

## 1. 서 론

본고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이다.<sup>1)</sup> 세계 여러 언어의 형용사를 대상으로 그의 특성을 살펴보면, 명사와 유사한 형용사도 있고, 동사와 유사한 것도 있다. 그리고 명사와 동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형용사도 있고, 그 외에 명사와도 구분되고, 동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성격을 띠는 형용사도 존재한다. 본고는 한국어 형용사와의 대비를 통하여,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어 형용사의 언어유형론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세계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형용사의

---

1) 고영근, 구분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유형론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형용사의 유형론적 특징을 파악하면,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적 지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의 품사적 지위가 동사나 명사보다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용사는 최초로 명사나 동사의 하위부류에 속해 있었다.<sup>2)</sup> 중국어에서 형용사는 사람 혹은 사물의 형상, 성질, 행위,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형용사의 존재 문제는 중국어학계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과연 중국어에서 형용사라는 범주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며, 만약에 중국어에서 형용사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체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용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을 보면, 그의 문법 지위에서 명사보다 동사와 더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대부분 학자들이 중국어에 형용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Dixon (2010)에서 형용사의 문법 기능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한국어는 첫 번째 유형, 즉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어의 형용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면 명사처럼 반드시 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처럼 직접적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가 모두 동사의 문법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냈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각각 그 고유한 특징과 속성에 따라 형용사의 문법 기능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보인다.

본고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 중국어로 된 용례는 중국 북경대학교 漢語 언어학 연구센터 現代漢語 말뭉치에서 추출하였다. 중국어 형용사의 유형론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한국어를 중심으로 비교하지만 필요할 때 다른 인구어도 언급할 것이다.

## 2. 형용사의 유형론

일찍부터 일반적으로 품사에 대한 최초의 논의로 인용되고 있는 플라톤은 품사를 명사와 동사로 2분하고 있다. 즉 유형론 관점으로 볼 때 형용사는 폐쇄주의거나 형용사라는 어류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들이 존재한다.<sup>3)</sup>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의 품사적 지위는 동사나 명사보다 뚜렷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전통 문법의 영향을 받아 형용사는 최초로 명사나

2)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이 처음에 문장을 명사성/주어와 동사성/술어의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었다.

3) Dixon (2004)에서는 형용사가 개방부류인 언어도 있고, 3개에서 수십개에 불과한 폐쇄부류인 언어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동사의 하위부류에 속해 있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Dionysius Thrax가 품사를 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분사와 관사로 분류하고 형용사를 제외시켰다. 그 후에 유럽 언어의 품사 분류 체계에서 형용사를 독립된 품사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스어 형용사는 처음에 명사의 하위 범주로 간주되었지만, 18세기에 자립 문법 범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형용사의 특징은 동사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동사의 하위 부류인 상태동사로 인식하는 언어학자들도 많이 있다. 프랑스어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은 명사와 유사하고, 한국어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은 동사와 유사하지만, 세계 수 많은 언어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와 달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군이 명사나 동사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통사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언어에서는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이 명사와도 다르고, 동사와도 다르다. 이 경우에는 형용사가 독립된 품사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Croft (1991)에서는 명사는 대상(object), 형용사는 속성(property), 동사는 행위(action)를 나타내는 것이 전형적이고, 또한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지시(reference)의 기능을 하고,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수식(modification)의 기능을 하고,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서술(predication)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많은 언어 중에 사물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군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지 그 단어군의 품사적 지위와 문법적 특징이 각 언어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전통 문법의 영향을 받아 형용사는 최초에 명사나 동사의 하위부류에 속해 있지만, 최근 형용사에 대한 유형론적 분류 작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는 Dixon (2010)에 따르면, 세계 유형론 학계에서 형용사는 명사와 동사의 특징과 비교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동사와 유사한 형용사이다. 즉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은 동사와 유사하거나 아주 비슷하다. 이러한 언어에서 형용사는 동사처럼 서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사와 똑같이 시상과 서법에 따른 활용을 하기 때문에 흔히 동사의 하위부류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한국어 형용사는 시제, 상, 서법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와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뉴욕 지방의 원주민어 모호크어(Mohawk)에도 형용사라는 품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군은 상태동사(stative verb)로 취급된다.<sup>4)</sup> 두 번째 유형은 명사와 유사한 형용사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형용사는 그 문법적 특징이 명사와 유사하거나 아주 비슷하다. 명사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성, 수, 격에 따른 굴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에서 형용사는 명사처럼 어미변화가 일어나고, 절의 서술어 기능을 하려면, 명사와 똑같이 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구어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어의 형용사는 자신이 수식하는, 또는 자신의 주어가 되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굴절을 한다. 독일어의 형용사는 자신과

4) 송경안 외(2008), 품사의 유형론, <언어유형론>, 월인.

관련되어 있는 명사의 격에 따른 굴절도 한다. 세 번째 유형은 명사와 동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다. 이 유형에 속한 언어가 많지 않지만 일본어를 예로 들 수 있다. 일본어에서 형용사와 동사의 활용 양상이 상당히 다르지만 형용사도 시상 및 서법에 따른 활용을 보여준다는 점을 보면 동사의 특징과 아주 가깝다. 하지만 일본어에서 동사와 가까운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와 가까운 형용사도 있다. 명사의 특징과 가까운 형용사는 형용동사라고도 불린다. 형용동사가 서술적으로 쓰일 때 계사와 결합한다는 점을 보면, 명사의 특성과 비슷하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명사와도 구분되고 동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다. 이러한 언어에서 형용사의 특징은 명사와도 다르고, 동사와도 다르다. 이 유형에 속해 있는 언어는 영어를 예로 들 수 있다. 영어는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와 똑같은 인구어에 속해 있지만,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달리 영어의 형용사는 명사의 성과수에 따라 굴절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형용사는 비교급 및 최상급으로 표현할 때 동사처럼 굴절 변화도 나타난다. 그리고 영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서술적 용법으로 쓰일 때 반드시 계사를 필요로 한다.

형용사의 유형론적 분류를 중국어에 적용하면 중국어의 형용사는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해 있을 것일까? 알다시피 중국어는 인구어와 같은 굴절어도 아니고,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도 아니기 때문에 굴절하거나 첨가하는 형태소가 없다. 중국어의 고립어적 특성에 따라 그 형용사가 어떤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살펴보자.

### 3.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적 지위 및 문법 기능

인구어 문법 체계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어 어휘가 實詞와 虛詞로 이분되어 있지만 현대 중국어의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대사, 부사, 象聲詞, 介詞, 連詞, 조사, 歎詞 열두 가지가 있다.<sup>5)</sup> 중국어 품사 통용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터 중국어에서 품사 구분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많았다. 즉, 동일한 형태를 가진 단어이라도 의미와 기능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명사 통용, 형용사·부사 통용, 형용사·동사 통용, 형용사·명사 통용 등이 있다. 이처럼 중국어는 품사 통용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어휘의 품사 분류가 고정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품사의 부류 기준은 형태, 통사와 의미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 형태와 기능은 품사 분류의 주요 기준이고, 의미는

5) 실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를 가리키고, 허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여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실사와 함께 쓰면 문법적인 기능만을 나타내는 어휘를 가리킨다.

보조적인 기준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중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朱德熙(1985)에서는 중국어는 의미에 따라 품사를 분류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품사 분류를 하는 목적은 문법 기능이 비슷한 어휘들이 같이 묶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미가 같은 어휘들이 문법 기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이지만, 반대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어휘는 다 형용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红色(빨간 색)은 사물의 색깔 상태를 표시하는 어휘이지만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에 속해 있다. 이처럼 의미를 품사의 분류기준으로 설정하면 타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朱德熙(1985)에서는 일부 언어에서 품사를 형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중국어는 고립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뚜렷한 형태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呂叔湘(1981)에서는 중국어 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한 의미의 형태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법 분석상에 문제 발생을 쉽게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품사 분류는 형태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고, 오직 문법 기능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黎錦熙(1924)에서는 중국어의 품사는 반드시 문장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고 문장을 떠나서는 품사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 3.1.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적 지위

중국어에서 형용사는 사람 혹은 사물의 형상, 성질, 행위,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sup>7)</sup> 1898년에 馬建忠이 <馬氏文通>에서 인구어 문법 체계를 원용하여 처음으로 중국어를 품사 분류를 하였다. 하지만 이 분류는 인구어의 품사 분류를 따라했기 때문에 중국어의 품사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형용사는 인구어처럼 동사와 구분하여 따로 설정되어 있지만 중국어의 형용사는 영어, 프랑스어와 같은 인구어의 형용사와 비교하면 형태 및 통사 특징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유형론 학자들이 품사 분류는 명사와 동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인하고 있지만 형용사의 존재를 범언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처럼 형용사의 존재 문제는 중국어학계에서도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 설정에 대한 논쟁이 주로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의견은 중국어에서 독립된 형용사가 없다. Chao (1958), Li & Thompson (1981)에서는 중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의 하위부류로 두고 있다. 두 번째 의견은 중국어에서 형용사와 같은

6) 黎錦熙(1924), “依句辨品, 離句無品.”

7) 馬建忠(1983)에서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생동하게 표현할 수 있는 實字로 정의하고, 黎錦熙(1924)에서 형용사는 사물의 형태, 성질, 수량, 지위를 나타내 주는 품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 앞에 와야 한다고 하였다.

품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Hengeveld (1992)에서는 중국어에서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고, 중국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융합된 언어(verb-adjective conflating language)라고 하였다. 세 번째 의견은 중국어에서 형용사가 존재한다. Wetzer (1996)에서는 모든 언어에서 형용사가 존재하며, 언어에 따라서 형용사가 동사성(verbly)인 것이 아니면 명사성(nouny)인가의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고 하였다. 대부분 중국어학 학자들이 이 중의 세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sup>8)</sup> 위에 제시한 세 가지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은 명사보다 동사와 더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Li & Thompson (1981)에서는 중국어의 형용사는 ‘형용사성 동사’라고 불리고, 동사의 하위부류로 두고 있다. 먼저 중국어 동사의 형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 중국어 동사의 형태와 문법상으로 여러 특징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뚜렷한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중국어 동사의 형태와 문법 특징:

ㄱ. 부사어 ‘不/没(有)’(부정 표시: 안/ V...지 않다) 수식을 받을 수 있다.

(1) 不 來

안 오다

안 오다

(2) 沒 有 去

지...않다 가다

가지 않는다

ㄴ. 대부분 동사가 술어로 사용될 수 있고, 뒤에 목적어를 수반 가능

(3) 他 在 吃 水果

그는 동작 진행표지 먹다 과일

그는 과일을 먹고 있다.

(4) 踢 足球

차다 축구

축구하다

8) 馬建忠(1898), 黎錦熙(1924), 呂叔湘(1942), 王力(1943), 朱德熙(1956)에서는 중국어 형용사는 독립된 품사로 보고 있다.

ㄷ. 동사 뒤에 동태조사 ‘了/着/過/起來’가 올 수 있다.<sup>9)</sup>

(5) 吃 了  
 먹다 과거시제 표지  
 먹었다.

(6) 吃 起來 了  
 먹다 동작상황 표지 조사  
 먹기 시작하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다.

ㄹ. ‘긍정+부정’식으로 의문문 구성 가능

(7) 這 本 書 你 喜 歡 不 喜 歡 ?  
 이 권(분류사) 책 당신 좋아하다 안(부정표지) 좋아하다  
 이 책을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ㄴ. 대부분 동사가 중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8) 說 說 笑 笑  
 말하다 웃다  
 웃고 떠들며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다.

ㄷ. 대부분 동사는 補語를 취할 수 있다.

(9) 跑 三 趟  
 뛰다 셋 번/차례  
 세 번 뛰다.

이상으로 중국어 동사의 형태 및 문법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 여섯 특징이 형용사에도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살펴보자.

---

9) 了: 과거시제 표지, 상표지, 동태조사  
 着: 진행시제 표지, 상표지  
 過: 과거 경험(..적이 있다)  
 起來: 동사나 형용사에 뒤에 나타나어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하고 점점 발전함

중국어 형용사의 형태와 문법 특징:

ㄱ. ‘不/没(有)’(부정 표시: 안/ V...지 않다) 수식 가능

(10) 不 漂亮  
안 예쁘다  
안 예쁘다.

(11) 没 熟  
지...않다 익다  
익지 않는다.

ㄴ. 일부 형용사 뒤에 목적어를 수반 가능

(12) 哥哥 比 我 大 五 歲  
형 보다 나 크다 다섯 세  
형은 나보다 다섯 살 많다.

ㄷ. 동태조사가 올 수 있다

(13) 臉 紅 了  
얼굴 빨갳다 조사  
낮을 붉히다.

(14) 胖 起來 了  
뚱뚱하다 상태표시 조사  
점점 뚱뚱해지다.

ㄹ. ‘긍정+부정’식으로 의문문 구성 가능

(15) 他 的 女友 漂亮 不 漂亮 ?  
그 의 여자친구 예쁘다 안(부정표시) 예쁘다  
그의 여자 친구는 예쁘냐, 안 예쁘냐?

ㄱ. 대부분 형용사가 중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16) 漂漂亮亮  
예쁘다.

(17) 乾乾淨淨  
깨끗하다.



이상으로 보면 중국 동사의 대부분 형태 및 문법적 특징은 형용사에도 적용된다. 즉 대부분 형용사도 동사처럼 ‘不/没(有)’(안/ V...지 않다) 수식을 받을 수 있고, 형용사 뒤에 목적어나 동태조사 ‘了/着/過/起來’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부정’식으로 의문문 구성도 가능하고, 중첩으로 된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어의 형용사와 동사가 형태와 문법적 특징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대로, 영어의 형용사와 동사는 형태 및 문법적 특징이 확실히 다르다. 예를 들면, 영어의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고, 시제, 상, 서법에 따른 활용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사는 단독으로 술어가 될 수 있지만 형용사는 반드시 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술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어의 형용사를 인구어의 형용사와 비교하면, 형태 및 문법적 특징이 동사와 더 가깝기 때문에 Chao (1958), Li & Thompson (1981)에서는 중국어의 형용사를 따로 분류되지 않고 동사의 하위부류로 두었다. 하지만 중국어의 형용사가 동사에 더 가깝다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마도 인구어와 달리 대부분 형용사는 동사처럼 다른 부가적인 성분들의 도움이 없이 단독적으로 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형용사가 동사처럼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다음 3.2.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에서 제시한 중국어 동사의 형태와 문법적 특징과 (2)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형용사도 동사의 형태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중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공통으로 가지는 형태와 문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중국어 동사와 형용사의 공통된 형태와 문법 특징:

- ㄱ. 부사어(정도부사, 否定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긍정+부정’식으로 의문문 구성 가능하다.
- ㄴ. 동태조사 ‘了/着/過/起來’와 결합할 수 있다.
- ㄷ. ‘긍정+부정’식으로 의문문 구성 가능
- ㄹ. 서술어가 될 수 있다.
- ㅁ. 중첩할 수 있다.<sup>10)</sup>

중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와 문법적 특징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데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朱德熙(1982)에서 ‘형용사는 很(너무)을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술어’라고 정의하였다. 즉 동사와 구분하여 동사는 很(너무)을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술어이지만 형용사는 그렇지 못한다.

10) 대부분의 형용사는 중첩할 수 있고, 형용사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형식과 의미가 동사의 중첩과 다르다.

- (18) 她 很 漂亮  
그녀 너무 예쁘다  
그녀는 너무 예쁘다.

여기서 ‘漂亮’(예쁘다)은 형용사에 해당된다. ‘漂亮’ 앞에 정도부사인 很(너무)의 수식이 가능하지만,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 (19) 他 在 看 報紙  
그 시제표지(진행) 보다 신문  
그는 신문을 보고 있다.

- (20)\* 他很在看報紙

반대로 (19)에서 ‘看’(보다)은 동사이고 ‘看’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앞에 정도부사인 很(너무)의 수식을 받으면 (20)는 비문이 된다. 하지만 朱德熙(1982)에서 제시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두 가지 조건은 모든 동사와 형용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 (21) 哥哥 比 我 高 10 釐米  
형 보다 나 높다 센티  
형은 나보다 10 센티 크다.

- (22) 委屈 你 了  
억울하다 너 助詞  
억울했네요.

- (23) 我 很 喜歡 看 書  
나 너무 좋아하다 보다 책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21)에서 ‘高’(높다)는 형용사이지만 뒤에 목적어 ‘10 釐米’가 나타나고, (22)에서 ‘你’(너)는 ‘委屈’(억울하다)의 목적어로 나타난다. 그리고 (23)에서 ‘喜歡’은 동사이지만 앞에 정도부사 很(너무)의 수식도 가능하다. 이처럼 朱德熙(1982)에서 제시한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조건은 예외가 존재한다. 馬眞(1981)에서는 형용사가 정도부사 很(너무)의 수식을 받으면 그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고, 반대로 형용사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 앞에 정도부사 很(너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張國憲(2006)에서 중국어 형용사는 여러 의미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量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형용사의 유형론적 연구를 보면, 각 언어에서 형용사의 정도 및 등급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영어와 같은 인구어는 형용사가 원급, 비교급과 최고급이 따로 있고,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고 형용사의 정도 표현이 정도부사를 통하여 한다. 그리고 정도성 차이를 구체적인 數值로 표현할 때, 그 數値는 보통 형용사 뒤에 나타나고 형용사의 목적어로 간주된다. 이처럼 數值로 된 정도 목적어를 準목적어라고 하고, (22)에서 다른 형용사 뒤에 오는 목적어를 眞목적어라고 한다. 11)(23)에서 ‘喜歡’처럼 정도부사 很(너무)의 수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사는 대부분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심리동사다. 중국어 심리동사는 愛(사랑하다), 喜歡(좋아하다), 害怕(두려워하다), 想念(그리워하다) … 등이 있다. 很(너무)의 수식을 받는 심리동사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형용사가 동사와 형용사 중에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朱德熙(1982)에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으로 대부분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가능하다.

### 3.2. 중국어 형용사의 문법 기능

Dixon (2010)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에 따라 형용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언어에서 형용사의 두 가지 표준적인 기능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자동사처럼 서술하는 기능, 또는 계사의 보어로서 서술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는 명사구의 핵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다.<sup>12)</sup> 중국어 형용사도 Dixon (20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식용법과 서술 용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국어에서 형용사의 본질적 기능이 수식인가 아니면 서술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賀揚(1996)의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의 형용사는 전체

11) 지금까지 중국어학계에서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兼類說(兼類說), 活用說(活用說)과 形容詞說(形容詞說) 세 가지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兼類說(兼類說)은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없고, 목적어를 취하면 형용사가 동사로 바뀐다는 것이다. 목적어를 취하는 형용사가 동사와 형용사의 문법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와 동사의 兼類라고 할 수 있다. 兼類說(兼類說)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呂叔湘과 朱德熙가 있다. 活用說(活用說)은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없고, 목적어를 취하는 형용사가 일시적으로 동사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한다. 活用說(活用說)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王力과 邢福義가 있다. 形容詞說(形容詞說)은 형용사가 보통 목적어를 취하지 않지만, 일부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形容詞說(形容詞說)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范曉와 沈錫倫이 있다. 본고는 이 중에 形容詞說(形容詞說)을 받아들이고 일부 형용사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Dixon (2010)에서 ‘형용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Adjective: class of words which typically refer to properties and have two main roles: (a) make a statement that something has certain property through functioning in intransitive predicate slot or copula complement slot; and (b) help to specify the referent of the head noun in an NP by functioning as modifier to it.

적으로 수식과 서술의 용법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sup>13)</sup> 먼저 수식의 용법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명사를 수식할 때, 그 양상은 굴절어와 교착어와 다르다.

(24) ㄱ. This is a beautiful campus.

- ㄴ. 這 是 一 個 美 麗 的 校 園  
 여기 이다 하나 아름답다 의 캠퍼스  
 ㄷ. 여기가 아름다운 캠퍼스이다.

(25)?? 這是一個美麗校園

(24ㄱ)에서는 볼 수 있듯이 영어에서 형용사의 형태 변화나 다른 부가적인 성분 없이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이 가능하다. 한국어는 교착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24ㄷ)처럼 관형어미를 붙여서 명사 수식이 가능하다.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被수식 명사 사이에 부가표지 ‘的’의 도움을 받아야 명사를 수식이 가능하다. 즉 (24ㄴ)에서 ‘美麗的校園’은 성립되지만 ‘的’가 없이 美麗校園으로 나타나면 문장이 아주 어색하다.

(26) 他 是 個 可 憐 的 孩 子  
 그 이다 개 (분류사) 불쌍하다 의 아이  
 그는 불쌍한 아이다.

(27)\* 他是個可憐孩子

(28) 學 生 選 擇 了 正 確 的 方 法  
 학생 선택하다 조사 정확하다 의 방법  
 학생은 정확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29)\* 學生選擇了正確方法

13) 賀揚(1996)에서는 구어와 문어를 구분해서 분석하면 통계수치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구어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비율은 59.1%이고, 명사를 수식으로 쓰이는 비율은 24.%이지만 문어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비율이 17.5%이고, 명사를 수식으로 쓰이는 비율이 63%이다.

(30) 對 我 來 說, 這 是 個 不 合 適 的 時 間  
 에게 나 으로 말하자면 이것 이다 개 (분류사) 안(부정) 알맞다 의 시간  
 나한테는 안 맞는 시간이다.

(31)\* 對我來說, 這是個不合適時間

(24ㄴ)에서 ‘的’의 첨가 없이 美麗校園으로 나타나면 문장이 비문까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다. 반면에 (27),(29)와 (31)에서 ‘的’를 첨가하지 않으면 문장은 아예 비문으로 된다. 그러나, 모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的’를 부가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32) 市 中 心 有 很 多 高 層 建 築  
 도시 중심 있다 너무 많다 높다 층 건물  
 도시 중심가에 고층 건물이 너무 많다.

(33) 昨 天 買 了 一 本 新 書  
 어제 사다 시제/상표시 하나 권 새다 책  
 어제 새 책 한 권 샀다.

(34) 他 是 一 個 胖 男 孩  
 그 이다 하나 개 뚱뚱하다 남자 아이  
 그는 뚱뚱한 남자이다.

이상 (32)-(34)에서 보면 형용사 ‘高層’, ‘新’, ‘胖’과 被수식 명사 ‘建築’, ‘書’, ‘男孩’ 사이에 ‘的’(의)을 첨가하지 않는다. 특히 (35)와 (36)는 ‘的’이 형용사와 명사의 가운데에 개입되면 문장은 아주 어색한 느낌이 들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sup>14)</sup>

(35) ?? 昨天買了一本新的書

(36) ?? 他是一個胖的男孩

郭銳(2002)에서는 2355개의 성질형용사 중에 688개가 ‘的’이 없이 직접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사용 빈도가 높은 468개의 형용사 중에서 285개의 어휘가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5)</sup> 하지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的’의 도움을

14) 사람의 직관에 따라 (14')와 (15')를 비문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

15) 朱德熙(1956)에서 형용사는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나누었다. 성질형용사는 성질 혹은 속성

받아야 가능한 형용사와 ‘的’의 도움이 없이 직접 명사를 수식이 가능한 형용사를 구분할 때 분류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심지어 같은 형용사라도 문맥에 따라 ‘的’을 개입해야 문장이 성립될 때가 있고, 개입하면 문장은 비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的’의 개입에 상관없이 모두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37) ㄱ. 這 是 一 個 美 麗 的 校 園  
여기 이다 하나 아름답다 의 캠퍼스  
여기가 아름다운 캠퍼스이다.

ㄴ. 共 創 美 麗 校 園  
같이 만들다 아름답다 캠퍼스  
아름다운 캠퍼스를 같이 만들자.

(38) ㄱ. ??這是一個美麗校園

ㄴ. 共創美麗的校園

(39) ㄱ. 首 席 執 行 官 將 發 表 演 講<sup>16)</sup>  
수석 집행관 곧(부사) 발표 연설  
최고 경영자께서 연설이 있겠습니다.

ㄴ. 他 擔 任 了 首 席 的 工 作  
그 맡다 시제/상표시 최고 경영자 의 일  
그는 최고 경영자 역할을 맡았다.

(40) ㄱ. \*首席的執行官將發表演講

ㄴ. 他擔任了首席工作  
그는 제일 중요한 일을 맡았다.

(37ㄱ)과 (37ㄴ)은 같은 형용사 ‘美麗’이지만 문맥에 따라 (37ㄱ)에서 캠퍼스를 수식할 때 ‘的’의 도움을 받아야 문장이 성립되지만, (37ㄴ)에서 캠퍼스를 수식할 때 보통 ‘的’을 형용사와 명사의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물론 ‘的’을 개입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반면에, (40ㄱ)에서 ‘首席’과 ‘執行官’ 사이에 ‘的’을 개입하면

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상태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16) ‘首席’은 명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黎錦熙(1924)에서 형용사를 區別詞로 분류하였다. 朱德熙(1982)에서 형용사를 용언으로 분류하였지만, ‘大型’과 ‘野生’ 등과 같이 서술어가 될 수 없고 단지 관형어만 될 수 있는 단어는 區別詞로 분류하였다. 區別詞는 사물의 특징과 분류를 하는 단어군의 총칭이고, 명사와 명사구를 수식하여 문장에서 관형어로 역할을 하고, 단독적으로 주어, 목적어와 서술어가 될 수 없다.

문장은 비문이 되고, (40L)에서 ‘首席’과 ‘工作’ 사이에 ‘的’를 첨가하지 않으면 문장은 아예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된다.

앞에서 형용사의 문법 특징은 수식성과 서술성 두 가지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영어에서 형용사의 수식성은 더 강하기 때문에 관형어로 사용될 때 다른 부가표지 없이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서술어로 사용될 때 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에서 형용사의 서술성은 더 강하기 때문에 서술어로 사용될 때 부가표지 없이 단독적으로 술어가 될 수 있지만 관형어로 사용될 때 관형어미를 첨가해야 명사를 수식이 가능하다. 중국어와 같은 경우에 형용사의 특징은 영어와 한국어의 특징을 겸하고 있다. 즉 일부 형용사는 영어처럼 수식성은 더 강하고, 일부 형용사는 한국어처럼 서술성은 더 강하고, 또 수식성과 서술성이 모두 강한 형용사도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직접적으로 수식할 경우도 있고, ‘的’의 도움을 받아야 수식이 가능할 경우도 있고, ‘的’의 첨가 여부를 구분 없이 다 가능한 경우도 있다.

朱德熙(1956)에서 형용사는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나누었다. 성질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혹은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를 들면, ‘大(크다), 小(작다), 好(좋다), 壞(나쁘다), 冷(춥다) 偉大(위대하다), 勇敢(용감하다), 封建(봉건적이다), 具體(구체적이다), 簡單(간단하다), 乾淨(깨끗하다)’ 등이 있다. 상태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蔚藍(짙은 남색), 湛藍(질 푸르다), 潔白(새 하얗다), 雪白(눈처럼 새 하얗다), 慘白(창백하다), 通紅(새 빨갛다), 嫩綠(파르스름하다), 筆直(매우 곧다)’ 등이 있다. 상태형용사는 단독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

(41) 他的臉色 慘白  
그 의 안색 창백하다  
그는 안색이 창백하다.

(42) 大地一片雪白  
크다 땅 전체 눈 하얗다  
대지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이다.

(41)과(42)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慘白(창백하다)’, ‘雪白(눈처럼 새 하얗다)’와 같은 상태형용사는 다른 부가 표지 없이 단독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성질형용사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성질형용사 중에 일부는 상태형용사처럼 직접 서술어가 될 수 있다.

- (43) 哥哥 的 頭髮 蓬鬆  
형 의 머리카락 텁수룩하다  
형의 머리는 부스스하다.
- (44) 這 本 書 內容 豐富  
이것 권 책 내용 풍부하다  
이 책 내용이 충실하다.
- (45) 媽媽 渾身 難受  
어머니 온몸 불편하다  
어머니가 온몸이 불편하다.

이상 ‘頭髮蓬鬆, 內容豐富, 渾身難受’의 ‘蓬鬆, 豐富, 難受’는 ‘主謂謂語’로 볼 수 있다.<sup>17)</sup> 主謂謂語는 앞에 피수식 명사와 같이 主謂소구로 구성되고, 피수식 명사는 小주어라고 부르고, 술어는 小술어로 부른다. 예를 들면, (43)에서 ‘頭髮蓬鬆’의 ‘頭髮’은 小주어이고, ‘蓬鬆’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이기도 하지만 主謂소구의 小술어이기도 한다. 이처럼 ‘主謂謂語’로 될 수 있는 성질형용사는 다른 부가표지 없이 단독적으로 술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일부 성질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데 다른 부가표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 (46)\* 老師 的 頭髮 長  
선생님 의 머리카락 길다  
선생님 머리카락이 길다.
- (47)\* 這 份 資料 具體  
이 분(분류사) 자료 구체적이다  
이 서류는 구체적이다.
- (48)\* 這 篇 論文 難  
이 편 논문 어렵다  
이 논문은 어렵다.

17) 主謂謂語(subject and its predicate phrase)는 主謂소구로 구성된 술어이다.



(46)-(48)에서의 ‘長, 具體, 難’은 성질형용사이다. 이들이 단독적으로 서술어로 사용되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하지만 다른 사물과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성질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

(49) 老師的頭髮長, 學生的頭髮短。  
 선생님 의 머리카락 길다 학생 의 머리카락 짧다  
 선생님 의 머리카락 길고, 학생의 머리카락 짧다.

(50) 這份資料具體, 那份資料不具體。  
 이 분(분류사) 자료 구체적이다 저 분 자료 부정부사 구체적이다  
 이 서류는 구체적이고, 저 서류는 구체적이지 않다.

(51) 這篇論文難, 那篇論文簡單  
 이 편 논문 어렵다 저 편 논문 쉽다  
 이 논문은 어렵고, 저 논문은 쉽다.

이상 (49)-(51)에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서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 성질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조의 의미 없고 단순히 사물의 특징을 기술할 때는 피수식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정도부사 ‘很(너무), 太(아주), 特別(특별히)’ 등을 첨가해야 (52)-(54)는 모두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다.

(52) 老師的頭髮很長。  
 선생님 의 머리카락 아주 길다.  
 선생님이 머리가 아주 길다.

(53) 這份資料太具體。  
 이 분 자료 너무 구체적이다  
 이 자료는 너무 구체적이다.

(54) 這篇論文特別難。  
 이 편 논문 아주 어렵다  
 이 논문은 아주 어렵다.

이처럼 영어에서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 자리에 올 때 반드시 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중국어에서도 일부 성질형용사는 정도부사를 그 앞에 첨가해야 서술어

의 역할을 하게 된다. Larson (2009)에서 중국어에서 일부 성질형용사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할 때 정도부사가 필요한 것은 명사가 서술어 역할을 할 때 계사(是:이다)가 필요한 것과 동등하다고 하였다. 즉 정도부사는 피수식 명사와 성질형용사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張國憲(2007)에서는 Larson과 다른 견해를 보여 주었다. 張國憲(2007)은 정도부사 ‘很’은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도를 표현하는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성질형용사 앞에 나타나는 접두사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很’+‘具體’는 두 개 단어이지만 張國憲(2007)에서 둘이 한 단어 ‘很具體’ 식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很’가 접두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Larson (2009)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른다. 왜냐하면 성질형용사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부가표지에 ‘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표현의 ‘不(...지 않다)’와 의문문에서의 ‘嗎(의문 조사)’도 있기 때문이다.

(55) 老師 的 頭髮 不 \_\_\_\_\_ 長.  
 선생님 의 머리카락 부정부사 길다.  
 선생님이 머리가 길지 않다.

(56) 這 份 資料 不 \_\_\_\_\_ 具體.  
 이 분 자료 부정부사 구체적이다  
 이 자료는 구체적이지 않다.

(57) 這 篇 論文 不 \_\_\_\_\_ 難.  
 이 편 논문 부정부사 어렵다  
 이 논문은 어렵지 않다.

(46)-(48)에서의 ‘長, 具體, 難’은 단독적으로 서술어로 될 수 없지만 피수식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부정을 표현하는 ‘不(...지 않다)’가 들어가면 (55)-(57)은 모두 성립된다. 서술형에서 정도부사와 부정표현과 같은 부가 표지가 있지만 의문형에서 의문조사 ‘嗎’가 성질형용사 뒤에 나타나면 성질형용사도 자연스럽게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이때 물론 정도부사와 부정표현은 이중 첨가도 가능하다.

(58) 老師 的 頭髮 長 \_\_\_\_\_ 嗎?  
 선생님 의 머리카락 길다 의문조사  
 선생님이 머리가 길니까?

- (59) 這 份 資 料 體 嗎?  
 이 분 자료 구체적이다 의문조사  
 이 자료는 구체적입니까?
- (60) 這 篇 論 文 難 嗎?  
 이 편 논문 어렵다 의문조사  
 이 논문은 어렵습니까?

보다시피 (58)-(60)에서 성질형용사 ‘長, 具體, 難’ 뒤에 의문助辭 ‘嗎’를 붙이면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앞에서 張國憲(2007)은 정도부사 ‘很’은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질형용사 앞에 나타나는 접두사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만약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嗎’도 ‘很’과 대칭으로 접미사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46)-(48)에서 보이듯이 ‘長, 具體, 難’은 단독적으로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없지만 정도부사 및 부정 표현 외에 의문助辭 ‘嗎’가 뒤에 나타나면 문장은 성립된다. 하지만 의문조사 ‘嗎’는 단지 조사의 하위 부류에 속해 있을 뿐이고, 접미사로 전혀 볼 수 없다.

이상으로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 지위와 문법 기능을 살펴보았다. 중국어 형용사의 형태 및 문법적 특징을 보면 명사보다 동사와 더 유사하다. 형용사 중에 일부는 영어의 형용사처럼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일부는 ‘的’의 도움을 받아야 수식이 가능하다. 형용사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할 때 상태형용사는 단독적으로 가능하지만, 성질형용사는 일부만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很, 不, 嗎’ 등 형태 및 문법 표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 4. 한·중 형용사 문법 기능의 대비

인구어에서 속성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군이 동사와 매우 큰 차이가 보이고, 명사와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형용사는 별도의 품사로 처리되었다. 일본어는 인구어와 비교하면, 형용사가 명사보다는 동사에 상당히 가깝기는 하지만 동사와 많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형용사를 독립된 품사로 선정하였다. 한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시기에 국어학자들이 영어와 일본어 문법의 영향을 받아 형용사를 별도의 품사로 분류하였다. 그 당시에 형용사를 따로 품사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타당하게 받아들인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후에 한국어 형용사의 형태와 문법 특징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면서 한국어의 형용사를 영어나 일본어와 비교하면서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2장에서 형용사의 유형론을 살펴볼 때, Dixon (2010)에서 형용사의 문법 기능으로 네 가지 유형을 나누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는 첫 번째 유형인 동사와 유사한 형용사에 속해 있다. 영어의 형용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면 명사처럼 반드시 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처럼 직접적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처럼 시제·상·서법에 따른 활용도 보여준다. 일본어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양상이 상당히 다르므로 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어 형용사는 명사와 동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형용사의 활용 양상은 동사와 아주 비슷하다.

- (61) 가.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나. 학생들이 책을 읽느냐?  
 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어른들은 비독을 두신다.  
 라. 학생들이 책을 읽어 본다.  
 마.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다.  
 바. 책을 읽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만다.
- (62) 가. 달이 밝다.  
 나. 달이 밝으냐?  
 다. 달도 밝고 바람도 시원하다.  
 라. 달이 밝아 있다.  
 마. 밝은 달이 높이 떴다.  
 바. 달이 밝기가 대낮과 같다.<sup>18)</sup>

(63) 동생은 책을 읽었다.

(64) 낮에 집이 어두웠다.

(61)의 밑줄 그은 동사를 살펴보면 앞부분 ‘읽-’의 활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62)에서는 형용사 ‘밝다’도 동사처럼 ‘밝-’은 변하지 않고 줄기 부분은 여러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4)에서는 형용사 ‘어둡다’가 동사 ‘읽다’처럼 시제에 따른 활용도 보여준다.

18) 남기심, 고영근(2009), <표준국어어문법론>, 탑출판사.

(65) 동생은 책을 읽고 있다.

(66)\* 낮에 집이 어둡고 있다.

(67) 책을 읽는 동생

(68) 어두운 집/ \*어둡는 집

한국어 형용사의 활용 양상은 동사와 아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도 있다. (66)에서 보듯이 동사는 현재 진행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형용사는 그렇지 못하다. 또 동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사용될 수 있는데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한국어 형용사는 다소 동사와 차이를 보이지만 형태 특징 및 통사 기능은 동사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한국어의 형용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사의 하위 부류로 처리한다. 즉 전에 동사라고 부르던 것을 동작동사라 부르고, 형용사라 부르던 것을 상태동사라고 부르고, 이 둘을 아울러서 동사라는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동사와 형용사는 주어를 서술한다는 기능으로 함께 묶여서 ‘용언’이라고도 부른다. 체언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에 비하여, 용언은 그것을 서술해 주는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3장에서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지위와 문법 특징을 살펴본 결과에 따라, 유형론적 관점으로 보면 중국어 형용사도 한국어 형용사처럼 동사의 문법 특징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형용사 중에 일부는 한국어 형용사처럼 단독적으로 명사를 수식 가능하고, 또 다른 문법적 표지 없이 직접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중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은 모두 동사와 유사하지만 두 언어의 특성에 따라 형용사의 형태와 문법 특징은 완전히 같을 수가 없다. 특히 중국어는 고립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형용사처럼 시제·상·서법에 따른 활용이 불가능하다. 다음 형용사의 수식과 서술 두 가지 기능을 통하여 한·중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살펴보자.

먼저 형용사의 수식 기능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반드시 관형어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69) 가. 신부가 아름답다.

나. 아름다운 신부

(70) 가. 동생은 훌륭하다.

나. 훌륭한 동생

(69)과 (70)에서 보여 주듯이 형용사 ‘아름답다’와 ‘훌륭하다’는 명사를 수식하는 데 반드시 관형어미 ‘-은/ㄴ’ 통하여 활용한 다음에 명사를 수식이 가능하다. 중국어에서도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데 ‘的’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단독적으로 명사를 수식이 가능한 형용사도 존재한다.

(71) 這 是 一 個 美 麗 的 校 園  
 여기 이다 하나 아름답다 의 캠퍼스

(72) 他 是 一 個 胖 男 孩  
 그(인칭대명사) 이다 하나 개 뚱뚱하다 남자 아이

(73)?? 他是一個胖的男孩

보다시피(71)에서는 ‘美麗’와 ‘校園’ 사이에 ‘的’를 첨가해야 문장이 성립되지만 (72)에서는 ‘胖’과 被수식 명사 ‘男孩’ 사이에 ‘的’를 첨가하지 않는다, (73)처럼 ‘的’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아주 어색한 문장이거나 혹은 비문이 될 수도 있다.

다음에 형용사의 서술하는 기능을 보자. 한국어의 형용사는 다른 부가 성분 없이 문장에서 단독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

(74) 민간에 횡행하는 도청을 막을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75)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3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중국어에서 형용사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 상태형용사는 단독적으로 가능하지만 성질형용사는 일부만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很, 不, 嗎’ 등 형태 및 문법 표기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76) 他 的 臉 色 慘 白  
 그 의 안색 창백하다  
 그는 안색이 창백하다.

(77) 哥 哥 的 頭 髮 蓬 鬆  
 형 의 머리카락 부스스하다  
 형의 머리는 부스스하다.

- (78) 老師 的 頭髮 很 長.  
 선생님 의 머리카락 아주 길다  
 선생님이 머리가 아주 길다.
- (79) 老師 的 頭髮 不 長.  
 선생님 의 머리카락 부정부사 길다  
 선생님이 머리가 길지 않다.
- (80) 老師 的 頭髮 長 嗎?  
 선생님 의 머리카락 길다 의문조사  
 선생님이 머리가 길니까?

(76)-(80) 중에 ‘慘白’은 상태형용사이고 ‘蓬鬆’과 ‘長’은 성질형용사이다. 보다시피 ‘慘白’과 ‘蓬鬆’은 문장에서 단독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지만 ‘長’은 ‘很, 不, 嗎’ 등 형태 및 문법 표기의 도움을 받아야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이 가능하다.

한·중 형용사가 수식과 서술 기능에서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성분에서도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어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와 관형어 역할을 하지만, 중국어 형용사는 이 외에도 주어, 부사어, 보어, 목적어의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 (81) 誠實 是 一種 美德. (주어)  
 성실 이다 한가지 미덕  
 성실은 좋은 품성 중의 하나이다.
- (82) 弟弟 在 努力 地 學習 (부사어)  
 동생 현재진행 표기 노력 조사 공부하다  
 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83) 衣服 洗 乾淨 了 (동사의 보어)  
 옷 빨다 깨끗하다 완료상 표기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
- (84) 弟弟 非常 怕 冷 (목적어)  
 동생 아주 무서워하다 춥다  
 동생은 추위를 많이 탄다.

(81)-(84)에서 형용사 ‘誠實’, ‘努力’, ‘乾淨’과 ‘冷’은 문장에서 각각 주어, 부사어, 보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의 형용사는 한국어의 형용사와 달리 관형어와 서술어 외에 다른 문장 성분도 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식, 서술기능 및 문장 성분 3가지 측면으로 한·중 형용사가 형태 및 문법 특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중 형용사는 모두 동사의 문법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냈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고유한 특징 및 속성에 따라 형용사의 기능에 차이를 보인다.

## 5. 결 론

본고는 중국어 형용사의 언어유형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의 품사적 지위가 동사나 명사보다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부터 전통문법에서 형용사는 최초로 명사나 동사의 하위부류에 속해 있다. 최근에 Dixon (2010)에서 전통문법에 힘입어 형용사를 명사와 동사의 특징과 비교하면서 형용사는 동사와 유사한 것, 명사와 유사한 것, 동사와 명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명사와도 구분되고 동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가지 유형을 나누었다. 3장에서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적 지위 및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으로써 중국어 형용사는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동사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중국어 형용사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할 때 상태형용사는 단독적으로 가능하지만, 성질형용사는 일부만 가능하고, 나머지 성질형용사는 ‘很, 不, 嗎’ 등 형태 및 문법 표기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수식의 기능을 할 때도 일부 형용사는 영어의 형용사처럼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的’의 도움을 받아야 수식이 가능하다. 4장에서 한국어의 형용사와 대비하여 수식, 서술기능 및 문장 성분 세 가지 측면으로 한·중 형용사가 형태 및 문법 특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중국어의 형용사 중에 일부와 달리 명사를 수식할 때 반드시 관형어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서술의 기능을 할 때는 한국어의 형용사는 단독적으로 문장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지만 중국어의 형용사는 일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 및 문법 표기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문장성분으로 봤을 때는 한국어의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관형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하지만 중국어의 형용사는 관형어와 서술어 뿐만 아니라, 주어, 부사어, 보어와 목적어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중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은 모두 동사와 유사하지만 한국어는 교착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중국어는 고립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적 지위 및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고, 유형론적 관점으로 보면 같은 동사와 유사한 한국어 형용사의 특징과 대비함으로써, 한·중 형용사의 형태 및 문법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선영. (2006). <형용사 범주 설정에 대한 재고찰>, 『돈암어문학』, 19, 256-268.
- 김용하. (2012). <한국어 형용사 범주 설정의 문제>, 『현대문법연구』, 69, 22-33.
- 김정남. (1998).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종호. (1998). 『현대중국어문법』, 신아사.
- 남기심·고영근. (2009).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목정수. (2008). <일본어 형용사와 형용동사의 유형론적 합의>, 『언어연구』, 25-3, 23-27.
- 목정수. (2011).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 단어 부류의 정립>, 『언어학』, 61, 132-140, 한국언어학회.
- 박정구. (2010).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형용사의 품사적 지위>, 『중국문학』, 65, 204-217.
- 송경안 외. (2008). <품사의 유형론>, 『언어유형론』, 월인.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임홍빈. (2001).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 조은숙. (2015). <중국어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구분>,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5년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3-181.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정음사.
- 郭锐. (2002).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 黎錦熙. (1924).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 呂叔湘. (1956).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 呂叔湘. (2002). 『漢語語法論文集』, 商務印書館.
- 呂叔湘·饒長溶. (1981). <試論非謂形容詞>, 『中國語文』 2期.
- 劉丹青. (2005). 『語言類型學和漢語研究』, 上海教育出版社.
- 劉道英. (2001). 『對形容詞語法特點的再認識』, 青海人民出版社.
- 馬建忠. (1983).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 方緒軍. (2002). 『現代漢語實詞』,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王力. (1954). 『中國現代語法』, 中華書局.
- 王悅婷. (2015). <現代漢語形容詞帶賓語現象簡析>, 『語文學刊』.
- 張國憲. (2006). <性質, 狀態和變化>, 『語言教學與研究』 第三期.

- 張國憲. (2007). <形容詞下位範疇的語義特征鏡像>, 『漢語學報』 第二期.
- 朱德熙. (1956). <現代漢語形容詞研究>, 『語言研究』 第一期.
- 朱德熙. (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 賀陽. (1996). <形名兼類的計量考察>, 『詞類問題考察』,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 Chao, Yuen-Ren. (195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roft, William. (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The Cognitiv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xon, R. M. W. (2004).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Dixon, R. M. W and Alexandra Y. Aikenvald, 1-49.
- Dixon, R. M. W. (2010). *Basic Linguist Theory*, Vol.2 Grammatical Topics. Oxford University Press.
- Hengeveld, Kees. (1992). Parts of Speech. *Layered Structure and Reference in a Functional Perspective*, 29-56. Amsterdam: Benjamins.
- Larson, R. K. (2009). Chinese as a Reverse Ezafe Language, *Yuyanxue Luncong* 39, 30-85. Peking University.
- Li, Charles N. and Sandra A. Thompson.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tzer, H. (1996). *The Typology of Adjectival Predication*. Berlin/NewYor: de Gruyter.

곽 휘

0873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ybu45025212@gmail.com

접수일자 : 2015. 10. 31

수정본 접수 : 2015. 12. 11

게재결정 : 2015. 12. 15